

“더 촘촘하고 두텁게”...광양시, 보육 감동도시 실현 ‘박차’

광양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전국 최고의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감동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생애복지 플랫폼’의 두번째 단계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유아기’ 양육비 부담 완화와 빈틈없는 보육체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며 보육교직원을 만족시키는 ‘보육 감동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보육분야 예산 799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인구가 거의 두 배인 인근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불어 2017년 출범한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부모 급여가 지난해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밀착 보육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0-1

세반 영아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명씩 축소하는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2년도 ‘지자체 저출산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도 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광양시 거주 남

799억 예산 확보...지역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부모급여 확대·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 등 확보

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광양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보육시설 이용 유아에 대해 부모들이 민

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2018년 19개소에서 2024

년 36개소로 대폭 확충됐다. 앞으로 황금지구 한라비발디, 황금지구 더샵베이센트, 중동 산이고운마린파크, 마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내에 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 개원할 예정으로 수준 높은 공보육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남 최초로 ‘아동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해 언어 및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

견하고 상담 치료 등을 연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아동발달상담’을 추진해 보육기관을 방문한 상담사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보육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해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 발굴하는 예방적 보육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서는 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1인1약기 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보육시설 64개소, 84학급에 약기 지원을 완료했으며 유아 약기 교육 전문강사가 보육시설로 찾아가 바이올린, 디지털피아노, 우쿨렐레, 난타북, 드럼 등의 희망하는 약기 수업(월 4회 25만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부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가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부담을 덜어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보육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빈틈없는 맞춤형 보육사업으로 젊은 층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광양만의 특화된 보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광양시가 ‘생애복지플랫폼’의 두번째 단계로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빈틈없는 보육체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광양안데르센어린이집 아이들이 ‘보육감동도시광양’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광양시제공>

장성군, 지방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속도’

탄력적 물 공급 위해 9월까지 장성정수장 급수 구역 블록화

장성군이 지방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장성군에 따르면 상수도 급수 구역을 블록으로 나눠 시스템화하면 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수량 배분계획 수립과 탄력적인 물 공급 관리 등이 한결 용이해진다.

지난 4월25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장성군은 9월까지 블록 시스템 구축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93% 완료율을 보여,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에는 급·배수관 세척과 수질·수

압 확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장성을 일부 지역 밤 시간 수도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 2천87세대에 이어 9일 황룡시장·면소재지·신기촌·외룡·방곡·기산리·주공 등 아파트 2천26세대, 11일 장안리·안평리·구산동·월산동·성산리·유랑리·수산리 1천727세대에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물 공급이 중단된다.

이번 블록 시스템 구축 공사는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성군은 블록 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별로 관망 정비, 유지 관리 시

스템 구축을 추진해 2025년 사업을 매듭짓고, 유수율 85%를 확보할 방침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이 생산한 수도물 가운데 요금 수입으로 받아 들여진 물의 비율을 말한다. 유수율이 높을수록 누수 등으로 손실된 물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열린 ‘물과 건강 포럼’에서 물 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수도 블록화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 토요시장 개장 19주년 “새로운 미래로”

전국 최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장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개장 19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의원, 시장 상인,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기념행사는 기념식, 플라멩코, 리마인드 전시회,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2005년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 최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개장했다.

이후 2015년 ‘한국관광의 별’, 2016년 ‘한국관광 100선’ 2023년에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에 선정되는 등 명성을

높이고 있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소비자 트렌드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목개발, 젊은 상

인육성, 친절마인드 향상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설, 칠거리 골목 르네상스사업 등 지속적인 주변 환경 개선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전국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곡성서 ‘하하호호 물총배틀’ 열린다

13일부터 내달 25일까지 매주 주말 여름 이벤트

곡성군은 9월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오는 13일부터 8월25일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하하호호 물총배틀’ 여름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타트랙 안에 있는 풍공을 물총으로 쏘 상대진영으로 보내는 ‘수타트랙 파워게임’, 참가자가 출발지점에서 비치물을 물총으로 쏘 도착지점까지 이동하는 ‘물총경주’, 5개의 컵을 물총으로 쏘서 집몰시키는 ‘컵집몰작전’ 등 다양한 게임이 준비돼

있다. 우수한 성적을 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이벤트는 매주 주말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한 시간씩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벤트 부스에서 물총 대여가 가능하다. 음악분수 주변에서 진행되는 행사장에는 파라솔이 비치돼 쾌적한 환경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이벤트에 참여했던 한 관광객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다. 올해 이벤트도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올해도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나 많은 이들이 방문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공식 인스타그램(gstrainvillage_official)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strainvillag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완판

150억 발행...지난 설비 2배 빠른 소진

여수시는 “최근 하계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가 60시간 만에 완판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매는 지난 설 발행액인 70억

원 대비 2배 증가한 150억원 발행에도 2배 빠른 판매 행진을 보이며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총 3천535명이 카드를 발급하고 가맹점 31개소가 신규 등록됨에 따

라 서민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 행사는 완판과 동시에 추가 구입 문의가 폭주하며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했다”며 “오는 추석에도 15% 할인을 적극 검토하고 가맹점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한우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농가당 최대 3천500만원

고흥군이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이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9일까지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춰 지급 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고흥=최봉환 기자

담양문화원, 의향담양국가유산상설체험 성료

지역 인적자원 역사 의미 결합...9월부터 하반기 체험 예정

담양문화원은 “최근 2024 생생국가유산 사업 ‘의향담양국가유산 상설체험’ 상반기 프로그램이 16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9일 밝혔다.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국가유산의 활용이 최대의 보전이라는 새로운 정의 아래 국가유산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를 지역 인적자원과 결합해 교육과 체험의 형태로 창출하는 국가유산청 공

모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담양국가유산 알리미들의 유산 해설 ▲의향담양국가유산 워크북 배우기 ▲의향담양국가유산 에코백 색칠하기 ▲태극기 블록·키링 만들기 ▲의병등 만들기 등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병들의 순국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교육 공간인 죽녹원 내 추성장의 기념관 일원에서 진행되는 ‘의향담양국가유산 상설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5월4일부터 시작, 10월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하루 30명씩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의향담양 상설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달 30일 기준 총 502명의 방문객이 참여했으며, 상반기 체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9월1일부터 하반기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담양문화원(061-381-0066)으로 하면 된다. □담양=정승규 기자